

<서평>

*Ingesting Jesus: Eating and Drinking in the  
Gospel of John*

Jane S. Webster

Academia Biblica 6,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송순열\*

이 책은 웹스터(Jane S. Webster)의 박사학위 논문을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에서 Academia Biblica 시리즈로 출간한 것이다. 은유(metaphor)를 연구하고 그 상징성의 의미를 찾는 것이 종교나 문화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트레이시(David Tracy)의 관점을 받아들여,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음식 섭취”(Ingesting<sup>1)</sup>) 즉, 먹고 마심과 관련된 은유(metaphor) 언어를 중심으로 그 문학적인 동기와 의도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특별히 이 은유적 언어를 요한복음의 구원론 그리고 성례전의 전승과 연결시켜 말씀이 육이 되신 예수의 죽음은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하는 것으로, 또한 제자들은 예수를 먹고 믿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역할로 그리고 있다.

서론은 방법론과 연구사를 다루고 있다. 서론에서 밝힌 저자의 방법론은 수사학에 나타난 은유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성격(tenor), 매개체(vehicle), 초점이나 틀(focus or frame), 불일치(incongruency), 대치(substitution)와 서사 비평이라는 문학적 이론을 도

---

\*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1) Ingesting을 번역할 마땅한 우리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음식 섭취”라고 번역했다.

입하여 음식 섭취(ingesting)와 관련된 요한복음의 언어들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제시한다. 음식 섭취와 관련된 언어들에 먹고 마심의 구체적인 행동의 묘사는 아니지만 먹고 마심을 표현하는 상징적이거나 간접적인 언어도 연구의 대상임을 밝힌다.

서론에 이어 저자는 음식 섭취와 연관된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8개의 장으로 나누어 주석하고 있다. 1장은 하나님의 어린양(1:29, 36)을 유월절 희생양과 연결시켜 예수가 죽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해석을 제공한다.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2:1-11, 13-25)에서는 포도주를 정화의 상징으로, 제의적 의미에서 예수의 피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가나의 기적사건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암시임을 말한다. 이어지는 성전 정화 이야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음식 섭취를 상징하지는 않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라는 구절을 들어, 예수 자신이 먹을 것으로 상징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생수와 죽은 음식’(4:1-42; 7:37-39; 12:24)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3장은 예수 자신이 ‘모두가 마셔야 할 영원한 생수’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의 말씀 중, ‘씩어짐’을 음식 섭취의 언어로 이해한다. 4장에서는 예수는 생명과 말씀의 빵이며 그 빵을 먹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임을 오병이어(6:1-71; 8:51-52)의 해석에서 찾아낸다. 5장에서 8장까지는(7장 제외) 3개의 만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베다니에서의 만찬(12:1-8)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음식의 공급자이거나 영생을 주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가 타인을 위하여 죽음을 암시하고, 그 죽음은 영생을 가져오는 죽음이기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축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 만찬(13:1-30; 15:1-17)은 수제식을 통해 예수는 자신을 ‘진정한 음식’으로 접대하고 있다. 15장의 가지의 은유는 그 안에 있어 과실을 맺는 것으로서 먹을 것과 관련을 시켜 음식 섭취의 은유를 보여주고 있다. 부활 후 아침 식사(1:1-15)에서는 부활 후 처음

나타나는 장면에서 예수는 음식을 제공하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음식 섭취와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다. 순서에 있어 가장 마지막 장이었으면 좋았을 7장은 처음과 마지막 잔(19:28-37; 18:1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절정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성서의 구절을 성취하시면서 “마시고 죽는”, 그럼으로 영생이 제공되는 예수의 십자가상의 모습에서도 음식 섭취의 은유를 찾아낸다. 예수의 죽음은 그의 사명이 섭취되어 완성되는 순간이다. 물과 피가 그의 찢린 몸에서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의 전 장에서 사용되었던 은유 즉, 음식 섭취와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각 장의 마지막에 제자들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의 역할이 처음에는 제한적이고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으나 그들에게 가르침이 주어지면서 점차로 예수의 삶과 말씀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역할로 발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먹고 마심이 구원자 예수와의 연관에서 나타나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져 그들의 사명으로 나타난다.

웹스터의 연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소위 음식 섭취와 관계된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했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전통적인 요한복음의 연구들이 다루던 주제들을 벗어나 음식 섭취에 대한 상징성의 언어들에 신학적으로 해석한 시도는 요한복음 연구에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킨 점도 새로운 시도로 보여진다. 특히 저자의 강점은 성서구절들을 주석할 때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극복해야 할 몇 가지의 과제가 보인다. 먼저, 서론에서 자신의 방법론으로 제안한 은유의 분석과 서사 비평의 방법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다루는 데 크게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는 점이다. 대체로 은유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성격(tenor), 매개체(vehicle), 초점이나 틀(focus or frame), 불일치(incongruency), 대치(substitution), 서사 비평에서 사용하는 서사자(narrator), 플롯(plot), 내재된 저자(implied author), 시점(point of view) 등의 분석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전형적인 주석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각 장의 마지막에 기술한 제자들의 관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서사 비평의 방법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결여는 결론에서 은유나 서사 비평의 분석의 결과들을 요약하지 않고 프리드만(W. Freedman)의 문학적 동기의 정의를 근거로 자신의 연구를 정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하나의 약점은 먹고 마심이란 은유를 사용할 때 주제에 대한 사회적 지평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후반 3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만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분석할 때 그 의미를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연결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만찬의 의미만 아니라, 만찬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먹고 마심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 안에서 형성된 은유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방법론에서 이 부분이 보완되었다면 더 나은 연구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용되는 구절들을 지나치게 먹고 마심이라는 주제로 연결시키기 위한 무리한 시도가 엿보이고 방법론적인 결함이 있지만 요한복음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연구이기에 요한복음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